

특기고



정기연 주필

# 아름다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전국 최대 배롱나무 특화 거리를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고 있다. 관내 전국도 구간 155km에 배롱나무 3만여 그루를 가로수로 심고 가꾸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조성해 화순에 들어서면 도로변이 온통 배롱나무꽃으로 장식돼 한여름의 아름다운 도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화순군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해 국·지방도, 관광유적지 등에 배롱나무 등 7개 수종 10만 2천여 그루를 꾸준히 심고 가꾸어 지금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름다운 거리 숲을 자랑하고 있다.

배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백일홍(百日紅)이라고도 하며 여름철에 백일 간 꽃이 피고 있어 지어진 이름이기도 하다. 꽃의 색상은 빨강 분홍 흰색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분류되며 빨간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배롱나무를 한방에서 방광염 치료 특효제로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배롱나무를 사찰이나 묘지에 꽃나무로 심고 가꾸고 있었는데, 화순군을 비롯한 전남 도내 시군에서 이 배롱나무를 지방 시군 특화사업 가로수로 채택해 조성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배롱나무는 한파에 약해 충청 이남에 심고 가꿀 수 있었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

게 됐다. 전남 도내 각 시군에서는 배롱나무 가로수를 구간별로 심어 배롱나무 꽃길을 만들었으며 배롱나무에서 풍기는 동양화적인 미감을 느끼게 한다.

배롱나무는 전라남도에서 권장하는 가로수로서 도내 각시군 도로에 심고 가꾸고 있는데, 그 가로수가 이제 꽃길 가로수로 구실을 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장식하고 있다. 개화 기간이 100여 일이 되는 배롱나무 가로수는 여름 내 빨간 꽃을 피워 도로변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채택해 심기 시작하면서 재배법이 보급돼 묘목을 대량 생산해 재배하는 곳도 생겼으며 배롱나무의 식재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가로수는 되도록 사철 푸르고 꽃이 피는 나무가 바람직한데 대부분 나무는 개화기가 짧는데 무궁화와 배롱나무는 개화 기간이 100여 일이 되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설되는 도로에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심고 있으며, 마을 진입로 변에 배롱나무를 심어 꽃길이 조성된 마을도 있다.

필자는 교직에 재직 중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보급하려고 배롱나무 묘목 생산방법을 시범적으로 학교에서 시도해 보고 생산된 묘목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을 단위로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배롱나무는 꺾꽂이도 잘 되고 씨앗으로 심어도 발아가 잘 돼 많은 묘목을 올해에 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이식이 잘되고 천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다. 배롱나무 꺾꽂이는 4월 초에 배롱나무 삼수를 8cm 길이로 잘라 모래나 마사토에 꽂으면 뿌리가 내리며, 씨앗은 12월 중에 채취해 4월 초에 파종하면 발아가 되고 자라서 묘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묘목을 공한지에 심으면 잘 자라는데 키가 크지 않아도 꽃이 핀다.

이처럼 재배하기 쉬운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채택해 대대적으로 가꾼다면 배롱나무 꽃길이 될 것이며 배롱나무는 개화 기간이 100여 일로 길기 때문에 가로수이면서 꽃길 조성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화순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가로수로 심어진 배롱나무는 잘 자라서 해가 갈수록 아름다운 꽃이 피는 꽃길 가로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꽃피는 수종이 드문 여름 내내 꽃이 피는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은 동양화 속을 달리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배롱나무 가로수 꽃길을 달리면서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채택해 심고 가꾼 전남도민들의 앞을 내다보는 지혜에 찬사를 보내면서 배롱나무 꽃길을 조성하려던 필자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흐뭇한 보람을 느꼈다.

독자기고

추석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김정용  
정흥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건수는 4만2천879건, 매년 화재 사망자 311명 그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140명이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다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감지한 후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을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이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취침 시간대에 경보음을 통해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연소 확대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간편하고 유용한 소화설비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주택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하고 안전한 공간이다. 화재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에 내 집부터 안전하게 지켜 더이상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22년 2월 장흥군 건산업 소재의 빌라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해서 입주인이 무사히 탈출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 화재로부터 나뉘는 안전장치이다. 무엇보다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9월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택용 소방설비인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준비해 설치해드린다면, 평생의 효도와 함께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사 장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이가영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부 사장 기백관	등록번호 광주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알로에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